

인용접속문의 축약 현상 연구*

구 종 남 (전북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인용축약 접속 구문의 특징 |
| 2. 인용축약 접속과 축약조건 및 양상 | 4. 결론 |

국문초록

인용 동사가 연결어미를 취하는 인용접속 구문에서 ‘-고 하-’가 생략되어 연결어미가 피인용문의 중화된 종결어미에 통합되는 인용축약의 양상과 조건을 논하고 이 인용축약 접속 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인용축약은 인용동사가 ‘하-’일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인바, 본고에서는 인용축약이 ‘하-’의 의미적 포괄성에서 기인하는 기능부담량이 적고 출현 빈도가 높은 속성과 관련된다고 주장했다.

비시간적 의미의 연결어미로서 인용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는 피인용문과 후행절이 접속어미의 기본적인 의미에 의해 관계적 의미가 성립되는 것들이었다. 이들에 속하는 의미 유형으로는 이유/원인, 양보, 반의, 가상조건, 상황조건, 필연 등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었으며, 축약이 불가능한 연결어미들은 피인용절과 후행절이 연결어미의 기본적인 의미를 통해 관계적 의

* 이 논문은 2017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 연구비 지원에 의해 쓰였음.

** 이 논문은 2017년 10월 28일 공주대학교에서 열린 2017년 한국현대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되었음.

미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의도/목적, 결과, 수단/방법, 비유, 강화를 나타내는 의미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한편 시간 관계의 접속어미로서 인용축약을 허용하는 연결어미는 ‘-면서/며’, ‘-다가’와 같이 선행절의 사태 안에 후행절 상황의 시간대가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동일한 의미 관계를 나타내지만 연결어미의 형태나 의미상의 특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문어에서 쓰이는 어미들로, 이들이 축약되지 않는 이유는 구어성 조건으로 설명되었다. 본고에서는 원청자 출현 제약, 연결어미들의 의미 축소, ‘-고’의 축약 제약 등 인용축약 구문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도 논의되었다.

주제어 : 인용축약, 인용동사, 연결어미, 융합, 생략, 구어, 동시성,
원청자, 문법화

1. 서론

간접인용문의 인용동사가 연결어미를 취할 때 간접인용문은 접속문의 선행절을 이루게 된다. 이런 간접인용 접속문에서 인용동사가 ‘하-’인 경우 인용표지 ‘-고’와 ‘하-’가 생략되면 연결어미가 피인용문의 중화된 문장 종결어미 ‘-다/냐/라/자’에 직접 결합되어 축약 형식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연결어미는 ‘-고 하-’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와 허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본고에서는 ‘-고 하-’가 접속어미를 취하는 인용접속 구문에서의 축약 양상과 조건을 논의하고, 이 인용축약 접속 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어의 간접 인용은 피인용문의 각 문장 종결법이 중화된 어미에 인용표지 ‘-고’가 결합되고, 뒤에 인용술어가 오는 방식이다. 인용술어는 여러 유형

으로 분류되며(후술) 여기에 인용동사를 포함한 많은 형식이 포함된다(이필영 1993, 채숙희 2011). ‘하-’는 이들 인용술어 중의 하나로서, 이 형식에 연결어미가 결합되어 인용접속 구문을 이룰 경우, 인용표지 ‘-고’와 인용동사 ‘하-’가 생략될 수 있다. 이 생략이 나타나면 ‘-다면서’, ‘-다는데’, ‘-다거든’ 등처럼 접속어미가 종결어미에 직접 통합되어 축약형을 이룬다. 여기서 문제는 왜 어떤 연결어미들은 인용접속 축약이 가능하고 다른 어미들은 축약이 불가능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인용축약은 연결어미라는 범주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축약/융합의 일반적인 조건과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용 축약은 다른 많은 인용 술어와는 무관하게 인용동사가 ‘하-’인 경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하-’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인용축약이 제약되는 경우 그 제약은 본질적으로 연결어미에서 기인하는 바, 제약 이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될 수 있다. 인용축약을 공식적인 것으로 볼 때 먼저 이 축약은 ‘-고 하-’가 생략되는 현상이므로 먼저 어떤 연결어미가 인용동사로 ‘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인용축약이 제약될 것이다. 이 경우 어떤 연결어미가 인용동사 ‘하-’에 통합되기 어려우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만일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축약이 제약되는 경우에는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용 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는 그렇지 않은 어미들과 달리 어떤 의미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연결어미의 관계 의미적 특징만으로 인용축약이 설명되지 않는 어미들은 축약(융합)의 일반적인 조건과 원리를 통해 검토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 인용 구문에서 기원된 융합형 연결어미/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전혜영 1983, 김홍범 1987, 안명철 1991, 이필영 1993, 이지양 1993 등) 연결어미 전반에 대하여 인용 접속 축약이 어떤 경우에 축약이 불가능하며, 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는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 기능적 특징을 갖는지, 또한 연결어미의 관계 의미적 특징 외에 어떤 조건으로 인용축약 제약을 설명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인용축약 구문은 어떤 통사·의미적 제약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고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에서는 먼저 인용축약의 개념, 인용축약에서 인용동사 ‘하-’의 특징과 인용축약의 동기를 살펴본다. 그리고 인용축약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제시한 후 이를 통하여 어떤 연결어미가 인용축약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지 축약 양상을 살펴보고, 인용축약의 조건을 밝힌다. 3에서는 인용축약 구문에서 원청자의 실현 제약,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 축소 현상, 연결어미 ‘-고’의 축약 제약 등 이 구문에서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살핀다.

2. 인용축약 접속과 축약 조건 및 양상

2.1. 인용축약 현상

인용동사가 연결어미를 취할 경우에는 피인용문이 접속문에서 쓰이는 구성이 된다. 이때 인용동사가 ‘하-’인 경우 이 인용동사 ‘하-’가 생략되어 인용동사에 결합된 연결어미가 피인용절의 종결어미에 직접 통합되어 나타난다. 피인용문의 문장 유형에 따른 종결어미가 ‘-다’ 외에 ‘-냐/라/자’가 될 수 있으므로 ‘-고 하-’ 생략에 의한 연결어미 축약 형식은 ‘-다/냐/라/자 + 연결어미’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¹⁾

- (1) 가. 내가 못 간다/대 {-고 해도, -도} 자꾸 오라는 거야.
나. 미자가 왜 안 왔냐 {-고 하면서, -면서} 나한테 화를 내더라.
다. 약을 먹으라 {-고 하니까, -니까} 미자가 제 방으로 들어갔어.
르. 정희가 여행을 하자 {-고 하는데, -는데} 나는 안 갔어.

1) 피인용문이 약속을 나타낼 때 종결어미가 ‘-마’로 나타나지만 이 경우는 무시하기로 한다.

위에서 보듯이 피인용문의 문장형에 상관없이 ‘-고 하-’가 생략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생략의 결과 위 문장은 인용접속 축약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런 형식상의 축소 현상을 축약으로 볼 것인지 융합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다.

인용문의 종결어미에 결합된 ‘-고’와 인용동사 ‘하-’가 생략되어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에 직접 결합되는 현상을 이전에 융합(fusion)으로 불렀다(이필영 1993: 150, 이지양 1993: 153). 그러나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형식인 인용동사 뒤의 연결어미가 피인용문에 결합되는 모든 경우를 융합이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축약을 단순히 ‘음(절) 줄이기’라고 할 때 ‘-고 하-’가 탈락되어 형식이 축소되는 현상은 그 자체로 축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융합은 의미나 기능의 변화를 전제하며 단순한 축약을 넘어 재구조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고 하-’가 생략되는 경우 원래 형식으로서의 환원 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이를 환원형과 비환원형으로 나눈다. 이필영(1993: 130)에서는 인용 접속 구문에서 ‘-고 하-’가 환원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융합으로 보고 있으나, 이지양(1993: 15)에서는 재구조화를 융합의 특성으로 삼고 있다. 인용접속 구문에서 ‘-고 하-’가 생략되는 경우 통사 구조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후술) 환원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용 축약형이 종결어미로 쓰일 때와는 다른 점이다. 종결어미로 쓰일 경우 축약을 거친 형식인 ‘-다면서’, ‘-다니까’ 등은 재구조화되었다는 점에서 융합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인용 접속 구성에서 ‘-고 하-’가 생략되어 연결어미가 피인용 절의 어미에 직접 통합되어 나타나는 형식을 축약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축약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서, 의문, 명령, 청유 등 피인용문의 모든 문장형 어미에 연결어미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이들 축약형이 모두 의미 기능의 변화를 겪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2. 인용축약과 인용동사 ‘하-’

인용 접속문은 인용문의 인용동사가 접속어미를 취하는 문장으로서 이 경우 인용동사는 접속문이 아닌 모든 유형의 인용문에서 쓰이는 인용동사가 모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인용 접속문에서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는 인용동사가 ‘하-’에 국한된다. 인용동사는 그 의미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될 수 있는바(발화동사(말하다 등), 해독동사(읽다 등), 사유동사(생각하다 등), 심리동사(느끼다 등)(이필영1993: 46)), 이들 동사는 발화수반력에서 차이가 있고 이들이 취하는 인용 형식과 피인용절 문장형도 다르다.²⁾ 이들 중 발화동사만이 네 유형의 문장형을 모두 택할 수 있다. 인용동사 ‘하-’는 진술, 질문, 명령, 청유 등을 모두 대체할 수 있어 포괄동사라고 할 수 있으며, ‘하-’는 이런 발화수반력에서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용동사들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해독동사나 사유동사, 심리동사 등은 대체할 수 없다. 이는 인용 접속절에서 인용동사가 이들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들 동사가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접속문에서 인용동사로 ‘하-’가 쓰여 축약이 가능한 경우는 발화동사가 쓰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포괄 동사적 성격의 인용동사 ‘하-’가 어떻게 축약이 가능하게 되는가이다.

인용동사 ‘하-’는 발화동사로 쓰일 때 진술, 질문/의문, 명령, 청유로 쓰일 수 있는 각기 다른 의미의 모든 인용동사를 대체할 수 있는 포괄동사라고 했는바, 이는 ‘하-’의 의미 영역이 그만큼 넓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는 ‘하-’가 비단 어휘적 의미에서의 포괄성뿐 아니라 문체적 의미 등을 포함한 내포적 의미에서 중화된 어휘라는 것을 나타낸다.³⁾ ‘하-’가 이런 어휘적 특징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이 중화된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휘적 기능보다는 문법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형식으로서

2) 이필영(1993: 46-48) 참고.

3) ‘하-’는 여러 의미적 측면에서 중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인용동사 ‘하-’는 ‘말씀하-’, ‘지껄이-’를 대신할 수 있는데 이들은 경어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하-’는 ‘보고하-’, ‘고하-’를 대신할 수 있는바, 이들은 격식성에서 차이가 있다.

의 특징을 내포한다. 발화동사들은 세부적인 유형에 따라 원청자가 ‘N에게’, ‘N을’, ‘Ø’ 등 각기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하-’는 이들 모든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사적인 포괄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2.3. 인용축약의 동기

동일한 기능을 갖는 경우 긴 언어 형식은 다른 의도적인 목적이 없는 한 짧은 형식에 비해 효율적인 것이 못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면에서만 보면 언어 형식은 축약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형식상 음운이나 음절 수 줄이기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이지양 1993: 16), 축약의 기본 동기는 경제성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축약에는 기본 조건이 존재하는바, 회복 가능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융합(축약)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고 하-’가 생략된 인용 축약과 관련되는 조건은 인접성과 빈도(형태론적 관계), 의미론적 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다.⁵⁾ ‘-고 하-’ 축약의 경우 인접 조건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이들은 각기 다른 통사 구조에 속하는 두 요소를 포함하므로 축약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이 형식이 축약될 수 있고 또 많은 인용동사 중에 ‘하-’만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용동사 ‘하-’는 다른 유형의 인용동사를 대체할 수 있는 포괄동사이기 때문에 그 빈도가 다른 동사와 비교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축약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축약형은 원형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므로 그 이질적 형식이 사회적 협약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빈도 출현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하-’의 포괄성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어성도 빠질 수

4) (물론) 축약형이 다른 의미 기능을 획득하면 회복 가능성이 상실되어 문법화되는 경우도 있다.

5) 이지양(1993: 23-36)에서는 융합의 조건으로서 인접한 연결형, 형태론적 관계, 의미론적 관련성, 음운론적 조건, 기존 단어와 형식 등 5가지를 들고 있다.

없는 고빈도와 관련된 사항인바, 융합은 주로 구어에서 일어난다(이지양 1993: 26). 구어에서 융합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정한 언어 형식들이 언중들에게 문어에서보다는 훨씬 많이 노출될 수 있기에 협약성을 획득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하-’가 대표적인 구어적 동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 하-’가 축약되는 이유가 ‘하-’의 포괄동사로서의 특징에서 기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⁶⁾

한편 ‘하-’가 의미적으로 포괄성을 띠어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가 인용동사로서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의 부담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는 인용구조에서 형식적인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융합형의 조건으로서 기능 부담량이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언급되는바(이지양 1993:28), ‘하-’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인용동사가 기능부담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바로 앞서 언급한 의미의 포괄성과 관련된다. ‘하-’가 여러 유형의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인용동사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동사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인용동사로서의 어휘적인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하-’는 인용이라는 문법적인 정보를 나타내 줄 뿐, 의미적인 기능은 다른 인용동사에 비해 약화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고 하-’가 기능 부담량이 적은 형식이라는 것은 이 형식이 생략되어도 이것이 이끌었던 절이 인용절이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가 생략되어도 원형을 확인 가능하게 하는 요소, 즉 이 구문이 (간접) 인용 구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요소는 바로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라고 할 수 있다. 이 중화된 어미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 존재함을 전제하며 그 형식이 문장형에 따라 중화된 형식 ‘-다/냐/라/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이 이끄는 문장이 피인용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용 접속 구문에서 ‘-하-’가 생략되어 ‘하-’ 뒤의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에 결합된다고 해도 그 구조가 인용 구문임

6) 그러나 구어에서 고빈도 출현형이라고 해서 축약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거칠게 말하여 인용동사 ‘말하-’는 구어적이며 출현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형식은 융합(축약)되지 않는다.

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구조상의 특징이 기능부담량이 적은 ‘하’의 속성과 더불어 ‘-고 하’를 생략 가능케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와 ‘하-’ 사이의 통사적인 밀접성도 이들 모두를 생략케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보듯이 ‘-고’와 ‘하-’ 사이에는 부사 등 다른 문장 성분을 개입시킬 수 없다.

(2) 정희가 내일 떠난다고 갑자기 {*하니까, 말하니까} 당황스러웠어.

‘-고’와 ‘하-’ 사이에 문장 성분이 개입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들 사이가 통사적으로 그만큼 밀착되어 분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생략될 수 있는 것도 이들 간의 밀착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4. 인용축약 가능성 조건에 대한 가설

인용 접속문은 피인용절 내용과 후행절이 직접적으로 연결어미에 의해 관계적 의미를 맺는 형식이 아니다. 인용 접속문에서 피인용절과 후행절은 인용동사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인 의미 관계를 맺는다. 한편 인용 접속문에서 ‘-고 하-’가 생략되어 인용 축약이 일어나면 이는 표면상 인용동사가 사라짐으로써 전형적인 인용접속문과는 다른 성격을 띤다. 무엇보다도 인용축약문은 원청자가 나타나면 부자연스러워진다(후술).⁷⁾ 인용 축약문에서 원청자가 나타나면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인용 축약문은 인식상에서 축약 전의 원래 인용 접속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용동사 ‘하-’가 생략된 인용 축약문은 피인용문의 존재를 드러내지만 이 피인용문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제시하지 않는 형식이다. 이런 사실은 인용 축약 접속문은 기능상 원래 형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모든 접속어미가 인용 축약이 가능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7) 모든 인용 접속문이 원청자가 나타날 때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인용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는 문장형을 나타내는 피인용절의 모든 종결어미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인용축약에서 축약 가능한 연결어미들이 피인용절의 종결어미와의 결합에서 모두 균질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즉, 인용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들이 피인용절의 모든 문장형과의 축약에서 동일하게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떤 연결어미는 피인용절의 중화된 의문형어미 ‘-냐’와 축약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다.⁸⁾ 본고는 어떤 연결어미가 피인용절의 모든 종결어미와 축약 가능해야 인용축약이 가능한 어미라고 보는 입장은 아니다. 연결어미가 ‘-냐’와 같은 특정한 종결어미와는 축약이 제약되는 경우에도 다른 종결어미와 축약이 가능하면 본고에서는 인용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로 본다.

연결어미가 인용축약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인용 접속문이 ‘하’ 동사를 취하는 경우는 인용 축약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연결어미가 ‘하’ 동사가 이끄는 인용문에 결합되는 것이 제약된다면 이 접속 어미는 당연히 인용 축약이 제약될 것이다.

둘째, 연결어미가 인용동사 ‘하’에 결합될 수 있는데도 인용축약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이유가 연결어미의 의미적 속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축약된 인용 접속 구성은 인용동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축약 전의 구조와 그 성격이 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축약된 형식은 피인용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시하는바, 인용동사의 생략은 선행절(피인용절을 선행절이라 부르기로 한다.)과 후행절 간의 의미적 관계를 더 긴밀하게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인용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는 바로 인용동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피인용절이 인용 방식에 기초한 어떤 정보로서 선행절로 제시되는 구성에서 선행절을 후행절과 관계적 의미로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어미에 허용되는 것이라고

8) 이는 화행과 관련된 문제로서 피인용문이 의문문일 때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의 설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들은 이를테면 이유 관계, 시간 관계, 양보 관계 등 연결어미별로 그 의미 유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유형에 속하는 어미들은 일률적 속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만일 같은 의미 유형에 속하는 어미들이 인용축약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인용축약에는 관계 의미적 속성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축약(융합)이 일어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런 가정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동일한 의미 관계 유형에 속하는 어미들이 축약상에서 보이는 차이가 축약의 일반적인 조건에 의해 설명된다면 인용 축약에 대한 설명적 타당성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연결어미의 인용 축약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5. 인용축약의 양상과 조건

인용 접속문에서 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들과 그렇지 않은 연결어미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 먼저 국어의 연결어미들을 의미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는 이익섭 외(1983:261)를 참고하여 축약 가능성 여부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한다.⁹⁾

<표 1> 연결어미의 인용축약 여부

의미유형	어미
시간	*-고, -으며, -으면서(이상 동시), *-고서, *-자, *-자마자, *-아/어서), *-아서(이상 계기)
이유/원인	-아/어서, *-아/어, -으니(까), *-으므로, *-으며, *이라(서),

9) 연결어미는 다양한 관계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에 따른 분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익섭 외(1983:261)에서 제시한 연결어미가 이루는 종속절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참고했다.

	*-다(고), *-느라고, *-은지라, *-을췌, -기에, ?기로(서니),
양보	'-아/어도, *-이라도, ?-더라도, *-든지, *-으나, *-거나, -은들, ?-을지라도, *-았자, ?-을망정
반의	*-으나, *-다만, *-지만
가상 조건	-면, -*아/어서는, -거든, *-았던들, -더라도, *-되
상황 조건	*-으니, -는데, *-건만, *-은즉, *-은바, *-을진대, *-거니와, *-더라니
의도/목적	*-으러, *-으려(고), -*고자
결과/목적	*-게, *-도록
수단/방법	*-아/어서, *-고(서), *-으며, *-으면서
전환	-다가
비유	*-듯,
강화	*-을수록
필연	-아/어야

인용 축약은 공식적인 현상으로서¹⁰⁾ ‘하-’ 동사를 인용동사로 갖는 인용문이 접속문의 선행절을 구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만일 접속어미 중에 ‘하-’ 동사를 인용동사로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동사가 있다면 이는 축약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다음의 접속어미들은 ‘하-’를 인용동사로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3) ㄱ. 일이 끝났다 {?-고 하느라고, -고 보고하느라고, -고 알려 주느라고, -고 전화하느라고} 내가 오는 것을 몰랐어.
 ㄴ. 실제로는 동수가 실수를 했다고 {?-고 하고자, -고 설명하고자, -알려 주고자, -고백하고자} 그를 만나자고 했다.
 ㄷ. 회영이는 물건이 떨어졌다 {?-고 하러, -고 알리러} 관리소로 달려갔다.
 ㄹ. 행렬이 다 지나갔다 {?-고한지라, -고 알려온지라, -고 고한지라} 모두들 밖으로 다시 나왔다.

10) 사실 인용 접속축약이 반드시 공식적인 현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이미 축약형이 어느 정도 문법화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예들이 본고의 논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ㄱ.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고 할째, -고 주장할새, -고 말씀하실 새} 그
도를 믿는 자가 많아졌다.

위 예문에 쓰인 연결어미들은 공식적으로 인용동사 ‘하-’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¹¹⁾ (37-c)의 어미의 경우 이들 접속어미가 ‘하-’를 인용동사로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하-’의 의미적 포괄성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이들 연결어미는 피인용문에 포괄적인 정보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특정한 정보를 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2-ㄱ)의 경우는 축약 제약의 이유가 연결어미의 의미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이들의 고어적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용동사 ‘하-’를 취하기 어려운 동사는 인용축약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하-’를 인용동사로 취할 수 있지만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이들 연결어미의 선행절과 후행절 관계의 연결에서 보이는 의미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인용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와 불가능한 연결어미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를 참고로 하여 논의의 편의상 축약이 가능한 어미들을 의미 유형별로 한 두 개씩만 예로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시간 관계가 아닌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4) ㄱ. 동수가 온다 {-고 해서, 아서} 내가 왔어
 ㄴ. 우리 팀이 졌다/대 {-고 하니까, -니까} 아이들이 모두 실망을 했 어.
- (5) ㄱ. 진주가 사과를 한다/대 {-고 해도, -도} 승호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ㄴ. 이제야 잘못을 인정한다 {-고 한들, -ㄴ들} 그 사람이 용서해 줄까?
- (6) 네가 그 애를 도와준다 {-고 하지만, -지만} 그 애는 불편하게 느끼고 있어.

11) 이들 문장의 수용성 여부의 판단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문맥에서 이들 연결어미는 인용동사 ‘하-’의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ㄴ째’, ‘-ㄴ지라’ 등은 공식적으로는 문어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연결어미이므로 인용접속문의 설정이 작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초점은 공식적으로 이들 어미가 인용동사 ‘하-’를 취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있다.

- (7) ㄱ. 신경이가 내일 안 나온다 {-고 하면, -면} 미자도 안 올 거야.
 ㄴ. 그 애가 책을 준다 {-고 하거든, -거든} 그냥 받아.
- (8) 비가 온다 {-고 하는데, -는데} 선회가 빨래를 널고 있어.
- (9) 약이 필요하다/대 {-고 해야, -야} (약을) 사오지.

위 예들은 인용 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들이다. 이제 이들의 의미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용축약이 불가능한 몇 어미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 (10) 미자가 열이 난다 {-고 하려고, *-려고} 엄마를 찾았지.
- (12) (진주는 정희에게) 미자가 예쁘다 {-고 하게, *-게} 설득을 잘 했다.
- (13) 철수가 배가 아프다 {-고 하듯이, *-듯이} 미자가 배가 아프다고 했다.
- (14) 아이들은 귀엽다 {-고 할수록, ??-르수록} 버릇이 나빠진다.

위의 인용접속문에 쓰인 연결어미들은 인용축약이 불가능하다. 앞서 제시한 인용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들과 불가능한 위의 어미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인용축약이 가능한 예를 인용동사를 제거하고 피인용절과 후행절을 연결어미의 기본적인 의미로만 관련지어 보기로 한다.

- (15) ㄱ. 동수가 오다 -아서(이유) - 내가 오다
 ㄴ. 우리 팀이 지다 -니까(이유) - 아이들이 모두 실망하다
- (16) ㄱ. 진주가 사과를 하다 -아도(양보) - 승호가 받아들이지 않다
 ㄴ. 잘못을 인정하다 -ㄴ들(양보) - 그 사람이 용서해 줄까?(그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
- (17) 네가 그 애를 도와주다 -지만(반의) - 그 애가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
- (18) ㄱ. 신경이가 내일 안 오다 -면(조건) - 미자가 안 오다
 ㄴ. 그 애가 책을 주다 -거든(조건) - 그냥 받아
- (19) 비가 오다 -는데(배경) - 선회가 빨래를 널고 있다
- (20) 약이 필요하다 -아야(필연) - (약을) 사오다

위에서 보듯이 인용 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들은 선행절인 피인용절을 연결어미의 기본적인 의미로 관련시켜도 의미 관계가 성립한다. (15ㄴ)에서 우

리 팀이 진 것은 아이들이 (모두) 실망한 이유로 해석될 수 있고, (16ㄱ)에서 진주가 사과를 한 것은 승호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의 양보 사항이 될 수 있다. 즉, 선행절이 양보 사항으로 제시되나 후행절은 기대와 부정되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7)에서 그 애를 도와주는 것은 그 애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과 상반된 관계로 해석된다. (18ㄱ)에서 선경이가 내일 안 오는 것은 미자가 안 오는 조건이 될 수 있다. (19)와 (20)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요컨대 인용 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들은 접속문의 인용동사가 생략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피인용문의 내용이 축약된 연결어미의 기본적인 의미만으로 후행절과 관계적 의미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의미 관계의 성립이 인용 축약의 기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은 축약이 불가능한 경우와 비교를 통해서 확실해진다.

- (21) 미자가 열이 난다 - 려고(의도/목적) - 엄마를 찾다
- (22) 미자가 예쁘다 - 게(목적) - 설득을 잘 하다
- (23) 철수가 배가 아프다 - 듯이(비유) - 미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다
- (24) 아이들이 귀엽다 - ㄹ수록(강화) - 버릇이 나빠지다

위에서 보듯이 ‘-려고’, ‘-게’, ‘-듯이’, ‘-ㄹ수록’은 피인용문인 선행절 내용을 후행절 내용에 인용동사 없이 연결한다고 할 때 관계적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21)을 미자가 열이 나는 것을 의도로 미자가 엄마를 찾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역시 (22)를 미자가 예쁜 것을 목적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3)도 철수가 배가 아프고 동일한 방식으로 미자가 배가 아프다고 한다는 해석은 불가능하며, (24) 역시 아이가 귀여운 정도가 심해질수록 직접 아이가 버릇이 나빠진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통해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의 경우 인용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들은 인용동사가 없어도 피인용문의 내용이 후행절과 관계적 의미를 이루는 어미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다음

의 예는 인용축약이 가능한 경우다.

- (25) 윤희는 일찍 출근해야 한다 {-고 하면서, -면서} 자리에서 (일찍) 일어섰다.
- (26) 선희는 미국에 못 간다 {-고 하다가, -다가} 미국에 갔다.

그러나 다음의 시간 관계 연결어미들은 인용 축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 (27) (내가) 우리 팀이 이겼다 {-고 하자마자, *-자마자} 아이들이 탄성을 질렀다.
- (28) 윤계가 돌아왔다 {-고 하자, *-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연결어미 ‘-면서’, ‘-다가’가 인용축약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이들 어미들이 관여하는 인용 접속문은 앞의 경우와 같이 시간적 의미 관계로만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 (29) 윤희가 일찍 출근하다 -면서(동시) - 자리에서 일어나다
- (30) 선희가 미국에 못 가다 - 다가(전환) - 미국에 가다

위에서 보듯이 (29)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시간상 동시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면서’의 동시적 시간적 의미로 연결될 수 없다. (30)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직접 (시간적) 전환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들 어미가 사용된 축약 구문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로는 시간적 의미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비시간적인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이들의 기본적인 의미를 통해 의미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그렇다면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이들 어미들이 구성하는 인용문이 어떻게 축약이 가능한지가 문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서’ 구문은 선행절(이 경우에는 인용동사에 이끄는 인용절)과 후행절이 동일 주어를 요구하며 시간대에서 ‘-면서’에 의해 이끌리는 절의 시간대에 후행 동사의 시간대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가 생략되어도 ‘-면서’의 이런 의미 특성으로 인하여 ‘-면서’만으로도 ‘하-’에 이끌리는 피인용문의 시간대 상황 안에 후행절이 포함되는 것이 가능함으로써 결국 인용절과 후행절이 동시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이 경우 축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하-’가 생략되어도 인용절의 시간대에 후행절의 시간대가 포함될 수 있는 ‘-면서’의 의미 특성으로 인하여 인용축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런 경우가 아닌 시간 관계 연결어미들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된다(후술).

‘-다가’도 선행절이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시간적으로는 ‘-면서’와 같이 선행절 상황의 시간대 안에 후행절의 상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가’가 쓰인 구문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예: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다).¹²⁾ 따라서 ‘하-’가 생략되어도 ‘-다가’로 인하여 시간대에서 이 연결어미가 이끄는 선행절의 상황 안에 후행절이 포함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 점에서 ‘-다가’는 ‘-면서’와 같은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이유로 ‘-다가’가 인용 축약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면서’와 ‘-다가’ 두 경우 모두 ‘하-’가 생략되어도 이들 어미의 시간적 의미 기능으로 인하여 선행절 상황의 시간대에 후행절 상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축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중에서 인용 축약이 불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와 같이 시간관계 연결어미 ‘-자’와 ‘-자마자’를 시간적 의미 관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1) 운체가 돌아오다 - 자(계기) - 사람들이 웅성거리다

(32) 우리 팀이 이기다 -자마자(계기) - 아이들이 탄성을 지르다

위의 경우 피인용절과 후행절이 계기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들 어미

12)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다.’에서 돌을 씹는 행위는 밥을 먹는 시간대에 포함되고 할 수 있다. 물론 ‘-다가’가 쓰인 인용접속에서는 후행절 상황이 인용절의 시간대 안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용으로 제시된 사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후행절 행위가 제시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의 축약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들 문장이 선행절과 후행절이 연결어미의 기본적인 의미로 연결되는데도 ‘-면서’, ‘-다가’와 달리 문장에서 인용축약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어미는 ‘-면서’, ‘-다가’와는 달리 의미적으로 계기적인 속성을 지녀 이들이 이끄는 선행절 상황의 시간대에 후행절 상황이 포함되지 않는다.¹³⁾ ‘-자마자’와 ‘-자’는 주어 동일 조건을 갖지도 않는 어미다. ‘-자’, ‘-자마자’가 인용축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잠정적으로 연결어미가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계기적인 의미를 가질 경우는 인용축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연결어미가 인용축약이 가능한 경우는 그 의미가 동시적일 때라고 할 수 있다. ‘-자마자’, ‘-자’의 경우는 ‘하-’가 생략되면 이들 어미만으로는 ‘하-’에 이끌리는 인용절의 사태를 후행절에 계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가 생략되어도 ‘-면서’만으로 ‘하-’에 이끌리는 인용절 사태를 동시적으로 연결하는 ‘-면서’와 다른 점이다.¹⁴⁾ 결국 연결어미가 시간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 어미가 ‘하-’에 의해 이끌리는 인용절

13) 인용 축약이 아닌 접속문 ‘성호가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계기적으로 이어지므로 선행절의 시간대에 후행절의 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14) 우리는 ‘-자마자’가 ‘-면서’와 달리 축약이 제약되는 이유를 ‘-자마자’의 계기나 동시라는 시간적 의미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을 떠나 이들 어미의 다른 기능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자마자’는 즉각적인 계기적 의미를 나타내므로 즉각적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이 어미가 결합된 동사를 생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인용축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면서’의 경우는 동시라는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바, 이는 후행 사건 시간대도 포함할 수 있는 시간적인 포괄성을 지니고 있어 인용 접속에서는 굳이 이것이 결합되는 동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주어 동일 조건도 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적 시도는 불완전한 것이 분명하다.

한편 ‘-자마자’가 축약이 불가능한 이유를 ‘-자마자’의 음운론적 조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어미의 ‘-다가’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와 동일하고 연속되는 동일한 연결어미의 세 모음이 피인용문 어미 ‘-다’와 상충되어 동일한 모음 넷이 연속되는 데에서 축약의 불가능성이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태가 후행 사태의 시간대를 포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축약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 연결어미의 의미 유형을 시간적 관계 의미로 나누어 축약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결어미가 시간 관계 이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연결어미 자체의 의미로 피인용절과 후행절을 연결할 수 있는 경우에 축약이 가능하며, 연결어미가 시간 관계를 나타낼 때는 그 연결 자체의 의미가 그 어미로 제시되는 시간대 안에 후행 사태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축약이 가능함이 드러났다.

앞에서 의미 유형별로 한 두 연결어미를 예로 들어 인용축약 가능성을 검토했거니와 동일한 의미 유형에 속하는 상이한 여러 연결어미들이 축약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의미 유형별로 각각의 연결어미들에 대해 인용축약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계기의 ‘-자마자’에 대한 논의에서 보았듯이 연결어미가 계기적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인용 축약이 제약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계기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고(서)’, ‘-아(서)’ 등도 축약 제약을 받는다는 논리가 가능하며 이는 사실이다(이하 앞의 표 참고).¹⁵⁾

원인/이유의 경우 ‘-기에’는 인용축약이 가능하며 ‘-기로(서니)’도 축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느라고’는 이 연결어미가 ‘하’ 인용문을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축약 가능성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라서’도 체언에만 결합되는 형식이므로 축약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양보의 어미 중에 ‘-더라도’는 축약이 가능하며 ‘-이라도’는 계사에 결합된다는 점에서 축약과는 무관한 어미다. ‘-았자’는 본질상 인용동사 어간에 직접 결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든지’, ‘-거나’는 양보의 어미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들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의미가 ‘-아도’류의 양보와는 다르다. 이들이 축약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⁶⁾ ‘-을망정’은 인

15) 동시/계기의 ‘-고’에 대해서는 후술된다.

16) ‘집에 있겠다 {고 하든지/거나, *-든지/거나} 같이 가겠다 {고 하든지/거나, *-

용축약에서 주변적인 것으로서 축약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양보 관계 접속어미들 중 축약이 불가능한 것은 의미 관계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그 이유가 있다.

반의 관계의 연결어미 ‘-지만’은 축약 가능한 어미였으나 ‘-다만’은 불가능하다. 이는 인용접속 구조에서 피인용절 어미 ‘-다’와 결합되어 문법화된 어미이기 때문에 축약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가상 조건의 ‘-았던들’은 축약이 불가능하다. 이는 형태적 복합성에서 기인하는 의미의 복합성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서는’은 사전(표준국어대사전)에 연결어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상황 조건의 ‘-으니’는 축약이 제약된다. 이 어미가 상황을 나타낼 때는 계기적인 의미적 성격을 띠는바, 축약 제약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생각된다. ‘-더라니’는 기원적으로는 융합 형식으로 단순한 상황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가 아니고 회상, 예측의 양상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관계적 의미를 단순화하기 어려운 어미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사실이 축약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¹⁷⁾

지금까지 연결어미의 의미 유형별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적 의미에 따라 추가적으로 축약이 가능한 어미들과, 동일 의미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연결어미들의 형태, 의미적 이유로 인하여 축약이 불가능한 어미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관계적 의미로 보아 축약이 가능한 의미 유형에 속하면서도 여전히 축약이 불가능한 연결어미들이다. 이 연결어미들이 인용축약에서 제약되는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위의 설명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의미 유형에 속하나 인용축약이

든지/거나} 분명히 말해.’에서 보듯이 이들이 선택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인용 축약이 불가능하다. 이들 어미가 반복적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에도 축약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예: 너는 거기 간다 {-고 하거나/든지, *-거나/든지} 집에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피한다.

17) 상황 조건의 ‘-더라니’는 ‘하’ 동사를 인용동사로 취하지 못하는 데서 축약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더라도’는 ‘하-’뿐 아니라 다른 인용동사도 취하기 어려운 연결어미로 판단된다.

불가능한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앞서 축약(융합)은 구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시한바, 그 이유는 사회적 협약성과 이에 관련된 빈도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인용 축약에서 비구어적인 연결어미는 일단 인용축약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인용 접속문에서 인용동사 ‘하-’를 취할 수 있으나 축약이 불가능한 어미로서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어미들이 모두 문어적 속성을 지닌다면 이런 가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 어미들은 모두 문어적 속성을 지닌 것들이다.¹⁸⁾ 연결어미의 인용축약이 구어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¹⁹⁾ 각 의미 유형에서 구어적 성격으로 인하여 인용축약에서 제외되는 어미는 이유/원인 관계에서 ‘-으므로’, ‘-으매’, ‘-은지라’, ‘-을쎄’,²⁰⁾ 양보 관계와 반의 관계에서 ‘-으나’,²¹⁾ 가상 조건에서 ‘-되’, 상황 조건에서 ‘-건만’, ‘-은즉’, ‘-은바’, ‘-을진대’, ‘-거니와’, 결과/목적 관계에서 ‘-도록’ 등이다.²²⁾

이제 살펴볼 대상은 위의 검토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의미 유형에 속하

18) 이은경(1999: 172)에서 구어체 텍스트에서 쓰이는 연결어미들을 통계적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30개의 연결어미를 사용 빈도 순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고’, ‘-면’, ‘-는데’, ‘-어서’, ‘-니까’, ‘-면서’, ‘-지만’, ‘-다가’, ‘-어도’, ‘-더니’, ‘-게’, ‘-라’, ‘-든가’, ‘-든지’, ‘-어야’, ‘-러’, ‘-려고’, ‘-더라도’, ‘-크수록’, ‘-거나’, ‘-다만’, ‘-다고’, ‘-도록’, ‘-듯이’, ‘-자마자’, ‘-나’, ‘-느라고’, ‘-길래’, ‘-지’, ‘-며’

19) 본고에서 말하는 인용축약은 비중결형인 경우를 의미한다. 인용 축약형으로서 문법화되어 종결어미로 쓰이는 것은 공식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20) 앞서 ‘-은지라’, ‘-을쎄’는 고어적인 성격을 지녀 인용축약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1) 이은경(1999:172)에서 구어체 연결어미 30개 중 ‘-나’는 빈도상 26위로 되어 있어 구어체 연결어미로도 쓰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동일 논문에 역시 통계적으로 조사된 문어에 텍스트에서 쓰이는 연결어미 45개를 제시하고 있는바(이은경 1999: 193), ‘-나’는 빈도 순위상 10위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으나’는 문어적이라고 할 수 있다.

22) 인용축약의 조건으로 연결어미가 구어적이어야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어’이다. 접속문의 용법에서 이 어미와 같은 의미를 가진 ‘-아/어서’는 축약이 가능하나 이 어미는 축약이 불가능한바, 그 이유는 이 어미가 문어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연결어미들의 경우다. 이 중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어미 ‘-아/어(서)’, ‘-고(서)’, ‘-으(며)’, ‘-으(면서)’의 경우는²³⁾ 접속 인용문에서 인용절이 그 자체로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문제의 인용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용축약 가능성이 차단된다. 이렇게 볼 때 연결어미들의 인용축약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모두 설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용축약 원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축약 원리 1: 인용축약은 구어적 연결어미에서만 가능하다.

인용축약 원리 2: 인용축약은 연결어미가 비시간적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연결어미 자체의 의미가 피인용절 내용과 후행 내용을 관계적 의미로 연결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인용축약 원리 3: 인용표지가 시간적 의미를 나타낼 경우는 상황적 시간대에서 인용절 사태에 후행절 사태가 포함되는 연결어미에서 가능하다.

3. 인용축약 접속 구문의 특징

3.1. 인용축약 구문의 원청자

앞서 언급되었듯이 인용축약 접속문은 축약 전의 원래 인용 접속문과는 달리 원청자가 나타나는 데 제약이 있다. 발화동사가 쓰인 인용문에서 원청자는 인용동사의 유형에 따라 원청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일방동사: 떠들다, 자부하다 등)와 ‘N에게’로 나타나는 경우(전달동사: 말하다, 대답하다 등), ‘N을/N에게’로 나타나는 경우(대상동사: 칭찬하다, 비난하다, 부르다 등), ‘N이’

23) 이들 어미는 수단, 방법 의미 외에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로 나타나는 경우(수용동사: 듣다, 배우다 등), ‘N에’로 나타나는 경우(기록동사: 쓰다, 나오다, 되다 등)로 나타난다(채숙희 2100: 51-52). 이 중 동사 ‘하-’는 수용동사, 기록동사로는 쓰이지 못하므로 축약과 관련이 없으며 일반동사는 청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역시 원청자 출현 여부와 무관하다. 인용문에서 청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달 동사와 대상동사인바, 인용 축약문에서는 이들 연결어미가 쓰일 경우 원청자가 나타나면 문법성이 의심스러워진다.

- (33) ㄱ. 철수가 진주한테 밥을 산다 {-고 하면, ?-면} 진주는 항상 거절했다.
 ㄴ. 진희가 미자한테 돈을 갚았다/대 {-고 해도, ?-도} 미자는 안 믿었어.
 (34) ㄱ. 민희를 똥똥하다 {-고 하니까, ?-니까} 그 애가 화를 내었다.
 ㄴ. 자네가 연희를 착하다/대 {-고 해야, *-야} 개 아빠가 좋아하지.

인용동사 ‘하-’는 (33ㄱ)에서는 ‘제안하다’에 의해, (33ㄴ)에서는 ‘말하다’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달동사적으로 쓰였고, (34ㄱ)에서는 ‘비난하다’에 의해 (34ㄴ)에서는 ‘칭찬하다’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점에서 대상동사로 쓰였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원청자가 나타나면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진다.

대상동사의 경우는 전달동사와 같이 ‘N에게’로 나타날 수 있지만 ‘N을’로도 나타나는바, 이 경우에도 축약 구성에서는 ‘N에게’뿐만 아니라, ‘N을’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인용 축약문이 피인용문의 존재를 인식하게는 하지만 생략됨으로써 완전한 인용문과는 다른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3.2. 연결어미 ‘-고’의 축약 제약

앞에서 인용 축약이 불가능한 연결어미들에 대해 그 이유를 살펴보았으나, ‘-고’에 대해서는 인용축약 가능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었다. 소위 융합형은 융합되기 전의 형태와 의미 기능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전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인용 축약형은 축약 구문에서 원청자가 제약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래의 인용문으로의 환원가능성이 있다.²⁴⁾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접속 인용축약 형식 ‘-다/냐/라/자 + 연결어미’ 형식은 문법화가 이루어진 형식이 아니며 단순한 축약형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다만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연결어미 ‘-고’와 관련된 축약 문제다.

- (35) ㄱ. 미자가 집에 간다 {-고 하고, -고} 도서관에 갔다.
 ㄴ. 진호는 매일 똑같은 반찬을 어떻게 먹느냐 {-고 하고, -고} 밥을 안 먹었다.
 ㄷ. 정희는 간식을 먹자 {-고 하고, -고} 빵을 가져왔다.
 ㄹ. 엄마는 집에 가만히 있으라 {-고 하고, -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위에서 원형과 축약형의 의미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고’의 ‘-고’는 인용 축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35ㄱ, ㄴ)에서 ‘-다고’는 인용축약형이라고 할 수 없다. 축약형처럼 보이는 ‘-다/냐/라/자 + 고’ 형식의 ‘-고’는 축약된 연결어미 ‘-고’가 아니고 피인용절의 종결어미에 결합된 인용표지 ‘-고’다. 다음의 예를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 (36) ㄱ. 바람이 들어온다 {??-고 하고, -고} 엄마는 문을 안 열었어.
 ㄴ. 언제 비가 왔나 {*-고 하고, -냐고} 날씨가 화장하다.
 ㄷ. 선희가 먹으라 {?-고 하고, -고} 과일을 깎아 놓았다.
 ㄹ. 정희가 차 한 잔 하자 {?-고 하고, -고}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갔다.

다른 모든 접속어미의 경우 인용축약이 가능하면 축약된 형식으로서의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냐/라/자 + 고’의 경우는 (외형상) 축약형(융합형)

24) 접속 축약 형태가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는 후행절을 회복시켜 접속문으로 환원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경우는 문법화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25) 예외적인 경우는 ‘-다면’, ‘-자면’, ‘-라면’ 등이다. 이들은 문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사전(표준국어대사전)에 연결어미로 등재되어 있다.

은 자연스러우나 원형은 비문이거나 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다고’ 형이 공식적으로 축약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융합에 의해 문법화를 경험한 형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²⁶⁾

3.3. 인용 축약에서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 축소

대부분의 연결어미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연결어미의 의미가 내재적 의미가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되는 연결어미의 경우는 각기 다른 의미 유형에 속하는 용법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비롯하여 다른 연결어미에서도 인용 접속문에서 용법상의 제약이 나타난다. 앞서 연결어미의 축약 제약 조건/원리가 논의된 바 있듯이 인용접속절에서는 인용 동사에 수단/방법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결합된다고 해도 인용절이 결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기는 어렵다.²⁷⁾ 이런 이유로 해서 수단/방법에서 인용축약이 제약되는 경우는 ‘-아서’, ‘-고서’, ‘-으며’, ‘-으면서’ 등이 있었다. 또한 연결어미가 계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역시 접속문의 인용 동사에 결합되는 경우는 결코 계기적 의미를 나타낼 수 없었다. 이런 어미 유형에 속하는 연결어미는 ‘-고(서)’, ‘-자’, ‘-자마자’, ‘-아(서)’ 등이 있었다. 이런 연결어미의 용법상 제약과 관련하여 살펴볼 문제는 연결어미가 여러 가지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다.

먼저 ‘-아서’의 경우는 이유나 원인의 의미와 계기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인용 접속문에서 ‘-아서’는 인용절을 계기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절로 도입할 수 없다. 따라서 ‘-아서’는 인용 접속에

26) ‘-다고’는 사전에 연결어미로 처리되어 있다. 인용표지 ‘-고’의 문법화 또는 형성에 대한 문제와 융합형 ‘-다/냐/라/자 + 고’ 형의 의미기능에 대해서는 구종남(2016) 참고.

27) 예컨대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서’가 인용동사에 결합되는 경우는 결코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로 해석되는 법이 없다. 이 경우 ‘-아서’는 오직 이유나 원인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다. 인용절이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는 인용동사 뒤에 ‘-므로써’가 쓰인다.

서 이유, 원인의 의미로만 쓰일 수 있다.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면서’의 경우는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예: 그것은 누르면서 잡아당겨야 열린다.) 그러나 인용 접속 구문에서는 인용절이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역시 앞의 ‘-아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면서’의 이런 의미적 용법도 제약된다.

‘-는데’의 경우 단순한 상황적 배경(예: 밥을 먹는데 그 아이가 들어왔다)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인용 축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37) ㄱ. 진주가 합격했다 {-고 하는데, -는데} 엄마는 안 믿는다.
 ㄴ. 진주의 덕이 크다 (??-고 하는데, ??-는데) 마침 그 애가 들어오는 거야.

(37ㄱ)은 ‘-는데’가 상반적, 대조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는 (37ㄱ)에서처럼 축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는데’가 단순한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면 접속 인용문에서 쓰이기 어려우며 당연히 축약도 제약된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인용접속문에서의 축약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용축약은 인용동사가 ‘하-’인 인용 접속문에서 인용동사가 생략됨으로써 ‘하-’에 통합되었던 연결어미가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에 직접 통합되는 축약 현상이다. 이런 축약 현상은 본격적인 재구조화나 문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융합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연결어미가 인용 축약을 허용하며 어떤 연결어미가 축약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축약을 허용하는 연결어미들은 의미 기능에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밝히기 위해 본고에서는 개략적이기는 하지만 국어의 연결어미를 기본적인 의미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는 이익섭 외(1983)의 연결어미 목록을 이

용하였다. 인용축약은 인용동사가 ‘하-’일 경우에 가능한 현상인바, 본고에서는 먼저 ‘하-’가 어떤 이유로 축약이 될 수 있는지를 융합(축약)의 일반 원리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융합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하-’가 생략되어 인용축약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인용동사 ‘하-’가 기능부담량이 적다는 사실과 관련되며 이는 ‘하-’의 포괄동사적 기능에서 기인된다. 다른 하나는 멀게는 형태론적 문제와 관련되는 빈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하-’의 포괄동사로서의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융합은 구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빈도 조건은 ‘하-’의 구어적 성격과 부합한다. 요컨대 접속구어에서 ‘하-’가 생략될 수 있어 결국 인용 접속 축약이 가능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의 의미적 포괄성에서 기인하는 기능부담량이 적다는 사실과 출현 빈도가 높으며 구어적 속성을 지닌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또한 연결어미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축약의 원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인용동사 ‘하-’를 취하기 어려운 연결어미나 공식적으로 인용절에서 쓰인다고 보기 어려운 연결어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은 인용축약과 무관한 어미로 처리하였다. 이런 연결어미를 제외하고 연결어미를 시간 관계와 비시간관계로 구별하여 축약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인용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들은 피인용문과 후행문이 접속어미의 기본적인 의미에 의해 관계적 의미가 성립되는 것들이었다. 이들 의미 유형에 속하는 의미 유형으로는 이유/원인, 양보, 반의, 가상조건, 상황조건, 필연 등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한편 축약이 불가능한 연결어미들은 피인용절과 후행절이 연결어미의 기본적인 의미로 관계적 의미가 성립 불가능한 것으로서 의도/목적, 결과, 비유, 강화를 나타내는 의미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시간 관계의 접속어미로서 인용축약을 허용하는 연결어미는 ‘-면서/며’, ‘-다가’였으며 불가능한 어미는 ‘-자마자’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계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이들이 시간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자는 선행절의 사태 안에 후행절 상황의 시간대가 포

함되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인용 접속문에서 연결어미가 쓰여 인용절이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 축약 가능성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아(서)’, ‘-고(서)’, ‘-면(서)’, ‘-며’ 등의 경우).

인용축약이 가능한 연결어미와 불가능한 연결어미가 이들의 기본적으로는 관계적 의미나 시간적 속성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설명되었으나 문제는 인용축약이 가능한 어미들과 동일한 의미 유형에 속하면서도 이들 어미들이 축약 현상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중 일부는 해당 접속어미들의 형태적 특성과 의미상의 특이성 때문에 축약이 제약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 관계를 나타내나 연결어미의 형태나 의미상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구어성 조건으로 설명되었다. 공시적으로 융합(축약)이 구어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축약현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축약이 불가능한 것들로 분류된 연결어미들은 구어 텍스트에서 쓰이는 연결어미에 대한 빈도 조사를 통해 이들이 문어적 연결어미임이 확인된 것들이었다.

본고에서는 인용 접속축약 구문과 관련된 몇 가지 특성도 살펴보았다. 먼저 인용 축약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청자가 출현하기 어렵다. 원청자는 인용 접속문에서는 인용동사의 유형에 따라 ‘N에게’ ‘N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들은 인용축약에서는 출현하기가 어렵다. 한편 연결어미 ‘-고’는 인용축약에서 제약된다. 축약형처럼 보이는 ‘-다/나/라/자 + 고’형이 있으나 이들에서 ‘-고’는 인용동사에 결합되는 ‘-고’가 아니고 인용표지인 것이다. 인용접속 구문에서 연결어미는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가질 수 있는바, 어떤 연결어미는 인용접속 구문에 쓰이면 이들 용법이 제약됨이 드러났다. ‘-아서’의 계기, ‘-면서’의 수단/방법, ‘-는데’의 단순 시간적 배경 제시적 용법 등은 인용접속 구문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용법으로 쓰이는 이들 연결어미들의 축약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참고문헌>

- 강인선(1977), 「15세기 국어의 인용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구종남(2016), 「인용표지의 연결어미적 기능」, 『국어문학학』 63호, 국어문학회, 71-101.
- 김수태(1994), 「우리말 인용표지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31, 국어국문학회, 239-271.
- 김희경(2011), 「간접 인용문의 구조적 특징 연구」,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51-82.
- 손옥현 외(2009), 「한국어 구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양상 연구」, 『한국어의미학』 28, 49-71.
- 안명철(1990), 「인용 구문의 융합적 특성」, 『김완진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 이금희(2006),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 『국어학』 48, 국어학회, 238-258.
- 이익섭 외(199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지양(1993), 「국어의 융합현상과 융합형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창덕(1993), 「현대 국어 인용 체계 연구」, 『텍스트언어학』 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55-299.
-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전혜영(1984), 「접속어미 ‘-다면’의 의미 기능」, 『이화언문논집』 7.
- 채숙희(2011),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Hopper, Paul J. and Elizabeth Closs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tews, D. H.(1974), *Morp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F. R.(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 Wierbicka, A.(1974), The Semantics of direct and indirect discourse, *Papers in Linguistics* 7, 267-307.

【Abstracts】

A Study on the Contraction in Quotative Connective Sentences

Koo Jong-nam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the possibility of quotative verb 'ha-' deletion and explain the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in quotative connective sentences. Connective ending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y permit quotation verb 'ha-' deletion in connective sentences.

Quotation contraction means the phenomenon that connective endings are associated to the final endings of the quoted clauses. Firstly, the reason why the quotation verb 'ha-' can be deleted was discussed through the general principles of fusion. The deletion of 'ha-' originated from the comprehensive meaning of the verb. The high frequency and light burden in meaning and orality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triggering fusion are the attributes of 'ha-'.

Some connective endings which permit 'ha-' deletion in quotative connective sentences have the meanings by which semantic relations come into existence between quoted clauses and following clauses just by the basic meaning of endings without the quotation verb 'ha-'. And some other endings having the meaning of simultaneity can delete the 'ha-' too. Connective endings which satisfy these conditions must be used in spoken language.

Some characteristics of quotative connective constructions are examined

: original hearers in contracted constructions cannot appear; connective ending ‘-go(고)’ cannot be contracted; the range of meaning in some polysemantic endings is narrowed.

Key Words : quotative verb, quotative connective sentence, Connective ending, Quotation contraction, fusion, deletion, frequency, spoken language, simultaneity, original hearer, grammaticalization

이 논문은 2017년 9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11월 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11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